

여수·대산 석화 250만t 감축 가시화… 울산은 ‘샤힌’ 갈등

여천NCC 공장 폐쇄안 승인 압박
대산 통합법인 공정위 심사 돌입
두 사업 완료 땐 정부 목표치 근접

LG화학·GS칼텍스 후속논의 지연
“정부, 명확한 구조조정 원칙 세워야”

정부와 업계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국내 석유화학 설비 감축이 여수·대산산단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두 지역은 정부 승인과 기업결합 심사 등 사업재판 실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울산산단은 기업 간 이해관계와 신규 설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 재편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제출한 여수산단 사업재판안이 이르면 이번 주 정부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안은 여천NCC 2·3공장을 폐쇄하고 1공장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통합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행되면 연간 약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140만t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감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최종안을 접수했다.

대산산단 사업재판안은 오는 9월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심의를 시작했으며 업계는 늦어도 8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 합병한 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가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방식이다.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110만t 줄어든다. 공정위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시장의 경쟁제한 여부와 시장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사업이 마무리되면 감축 규모는 정부와 업계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270만~370만t)의 최소치에 근접한다. 구조조정도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설비 통폐합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다만 여수산단 내 후속 재판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G화학·GS칼텍스는 NCC 감축과 설비 운영 효율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투자 부담과 합작법인 지분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 규제도 지분 구조 설계의 걸림돌이다.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LG화학·합작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이 증손회사가 돼 원칙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재판 특례 등 별도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산단은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쓰오일이 생산능력 조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감축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 재편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약 9조원이 투입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다. 연간 180만t 규모의 신규 에틸렌 설비가 가동되면 여수·대산의 감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는 에쓰오일도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에쓰오일은 최신 고효율 설비를 노후 NCC와 같은 기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과 학과 교수는 “최신 고효율 설비 중심의 재편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만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경쟁력이 약한 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명확한 감축 기준과 구조조정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metro

dhalehale@metroseoul.co.kr

40년 만에 ‘초엔저’… 원화값, 하이닉스발 달러 유입에 반등

엔·달러 26거래일 연속 160엔대
올 평균 158.4엔, 1986년 후 최고
미·일 금리차 우려에 엔화 약세 심화
日 개입 땐 원화값 추가 상승 가능

올해 상반기 원화와 함께 뚜렷한 약세를 기록했던 엔화값이 달러당 160엔을 넘기며 엔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원화값은 하이닉스발(發) 달러로 숭통이 트인 반면, 엔화값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해서다.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가 강세 전환하면 원화값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뉴욕 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달러당 162.39엔에 거래를 마치며 26일 거래일 연속으로 160엔을 넘겼다. 특히 올해 들어 엔·달러 환율 평균은 약 158.4엔에 육박했다. 이는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2024년의 151.5엔과 비교해 약 4.6% 높은 수준이며, ‘플라자합의’의 영향이 본격화 한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엔화값 최저)치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취급하고 있다.

/뉴시스

◆ 엔화, 올 들어 약세 ‘뚜렷’

지난 1985년 9월 말 체결된 ‘플라자합의’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달러값을 하락시키고 다른 통화값을 올리는 조치다.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기조로 달러값이 폭등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하면서 마련됐다. 1985년 당시 달러당 254.2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3년 뒤인 1988년에는 달러당 128.2엔 수준까지 내렸고, 이후 환율은 달러당 100~140엔 수준에서 관리됐다.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엔화값은 지난 2021년부터 하락했다. 코로나19 당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높이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했던 일본과의 금리차가 벌어졌고, 2024년에는 연간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넘겨 ‘초엔저’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넘기자 일본은행은 지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를 선언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60엔을 위협했던 엔·달러 환율도 140엔 중반까지 하락(엔화값 상승)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면서 2025년의 연간 환율은 다시 달러당 150엔 아래로 내렸다.

일본은행은 지난 6월까지 총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현재 일본은행 정책금리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차는 2.75%포인트(p)다. 코로나19 직후의 5.5%p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의 엔·달러 환율은 오히려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을 넘겨 엔화의 약세가 뚜렷하다.

◆ 금리 기대 깨져… 상승 모멘텀 부재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데도 엔화의 약세가 심화한 것은 연준이 지난해 말까지 지속했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중단하고, 금리 재인상에 돌입할 수 있

다는 분석에서다.

앞서 지난 2024년 하반기 엔화가 강세 전환한 것은 일본이 정책금리를 높일 것이라 여겨진 반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해 미·일 기준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 전망에서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미국 내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같은 전망은 약해졌고, 미 연준과 일본은행이 모두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일본은행의 현재 정책금리는 연 1% 수준이다. 0.25%p를 인상한다면 기준금리의 25%를 인상하는 만큼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 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 3.75% 수준으로 0.25%p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향후 일본은행과 미 연준이 모두 금리 인상에 돌입한다면, 미·일 기준금리차는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입 우려도 엔화값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은 중동산 원유에 에너지의 약 90%를 의존한다.

◆ 엇갈린 원화와 엔화

통상적으로 원화는 엔화를 따라 움직인 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유사하

고, 같은 지역 통화로 묶이는 성향이 있는 만큼 원화는 기축통화인 엔화에 동조성을 띤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는 ‘중동사태’ 여파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화 가치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나란히 하락하며 ‘역대급 약세’를 기록했다.

원화와 엔화는 이달 초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상황이 엇갈렸다. SK하이닉스발(發) 달러 자금 공급으로 달러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일부 해소되면서 원화값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증가(오후 3시 30분 증가)는 1478.5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해 70원 넘게 내렸다.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원화값은 4.27% 올라 주요국 가운데 절상률 1위를 기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구두성 개입 발언에도 중동사태 영향으로 엔화값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면서 “다만 엔화의 약세에 베포하는 투기적 순매도 규모는 2주 연속으로 감소했다.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는 주목되는 변수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최태원 “이해관계자 침해 땐 성과급 바꿔야”

SK하이닉스 ‘영업익 10%’ 성과급
시행 1년도 안 돼 자사주 지급 논의
“긍정적 효과도… 몇 년 지켜봐야”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연동 성과급’이 시행 1년도 안 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노사가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처음으로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



닉스는 지난 14일 열린 제3차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초과이익분 배급(PS)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급 비중과 대상, 의무보유 기간 등은 노사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S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00%였던 PS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산정된 성과급의 80%는 당해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실적이 늘어도 PS가 기본급 1000%를 넘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실적과 임직원 보상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요구했고,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이익의 10%를 적용하면 PS 재원은 20조원을 웃돈다.

임직원 수로 단순 환산하면 1인당 지급액이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노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보다 지급 방식을 먼저 논의하는 것도 대규모 현금 지출과 관련이 있다. PS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면 회사는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임직원은 주가가 오를 경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실제 수령 가치가 낮아질 수 있어 노조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이번 교섭 결과는 다른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자사주 지급 비중과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적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업계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구성원들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며 “1년도 안 된 합의를 바꾸는 것도 스트레스인 만큼 몇 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침해했다면 손을 대고 바꿔야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